

2017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7 신진건축사대상 대상
2017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최우수상
2017 울산시 건축상 대상

매곡도서관

가족과 함께 책의 숲을 거닐다

이승환
전보림

아이디알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3,787.0m ²
건축면적	731.34m ²
연면적	2,103.77m ²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높이	12.75m
건폐율	19.31%
용적률	43.80%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주)하모니구조
설계	이승환, 전보림
설계담당	최정석, 차주협, 정동욱, 서세희, 이유미
시공	미건종합건설(주)
기계·전기설계	(주)하나기연
설계기간	2015. 8.~2016. 2.
시공기간	2016. 4.~2017. 4.
공사비	약 48억 원
건축주	울산시 북구청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마을을 향해 열려있는 매곡도서관의
진입마당





매곡도서관은 ‘엄마·아빠가
아이와 함께 산책하듯
책을 읽으러 가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설계된
도서관입니다.
다른 도서관과는 다르게
어른을 위한 열람실과
아이를 위한 열람실이 벽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실 전체가 경사로로
연결되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약자도
일반인과 똑같은 경로로
도서관을 오갈 수 있습니다.

매곡도서관은 시험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한 독서실이 아니라
함께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다소 시끄러운 도서관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쾌할 정도의
큰 소리는 안 되지만,
책을 읽어 주는 작은 소리나
책에 대한 조용한 대화는 서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도서관 안내문 中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실



© 진경하



© 진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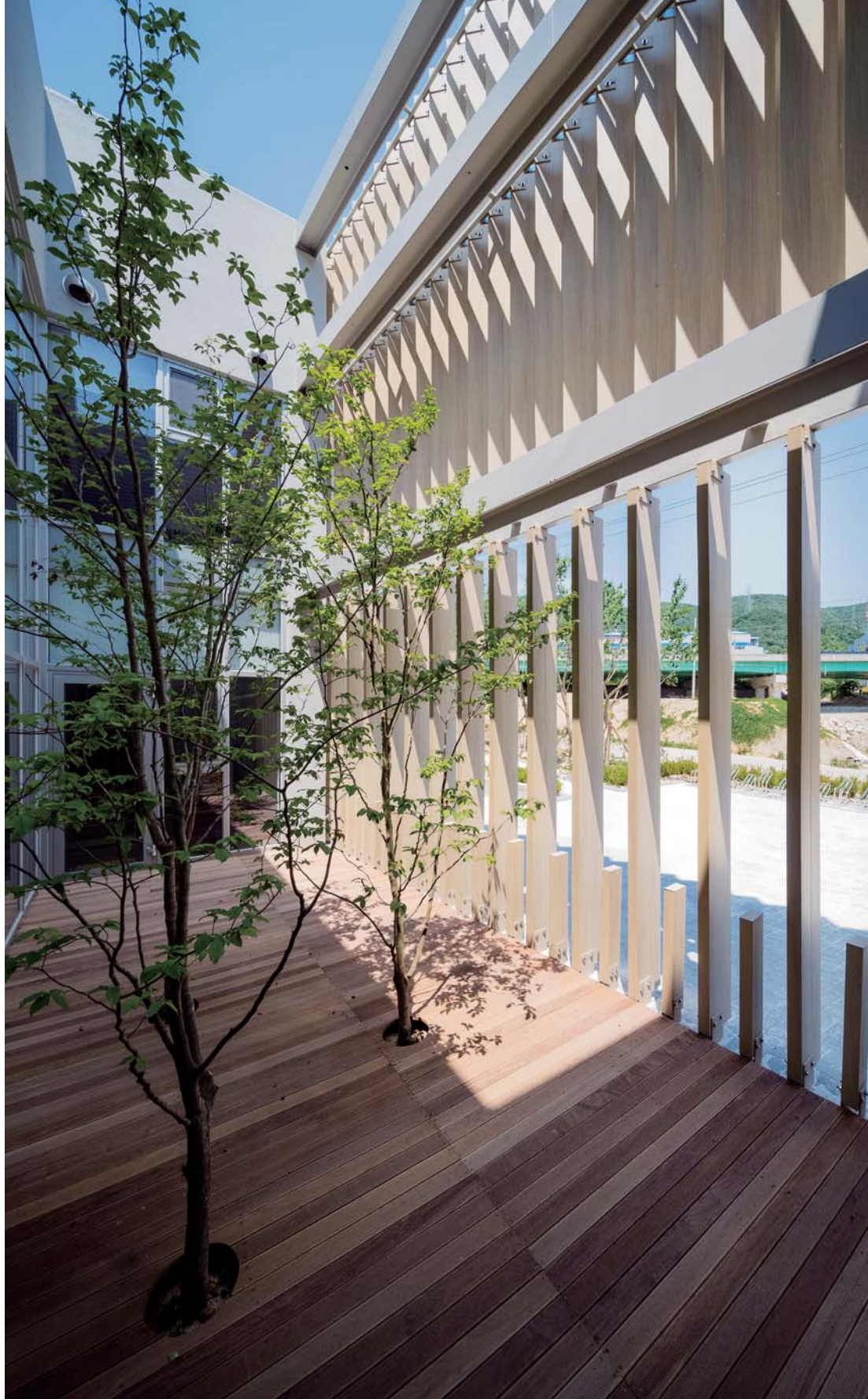


© 진경하

상
하·좌
하·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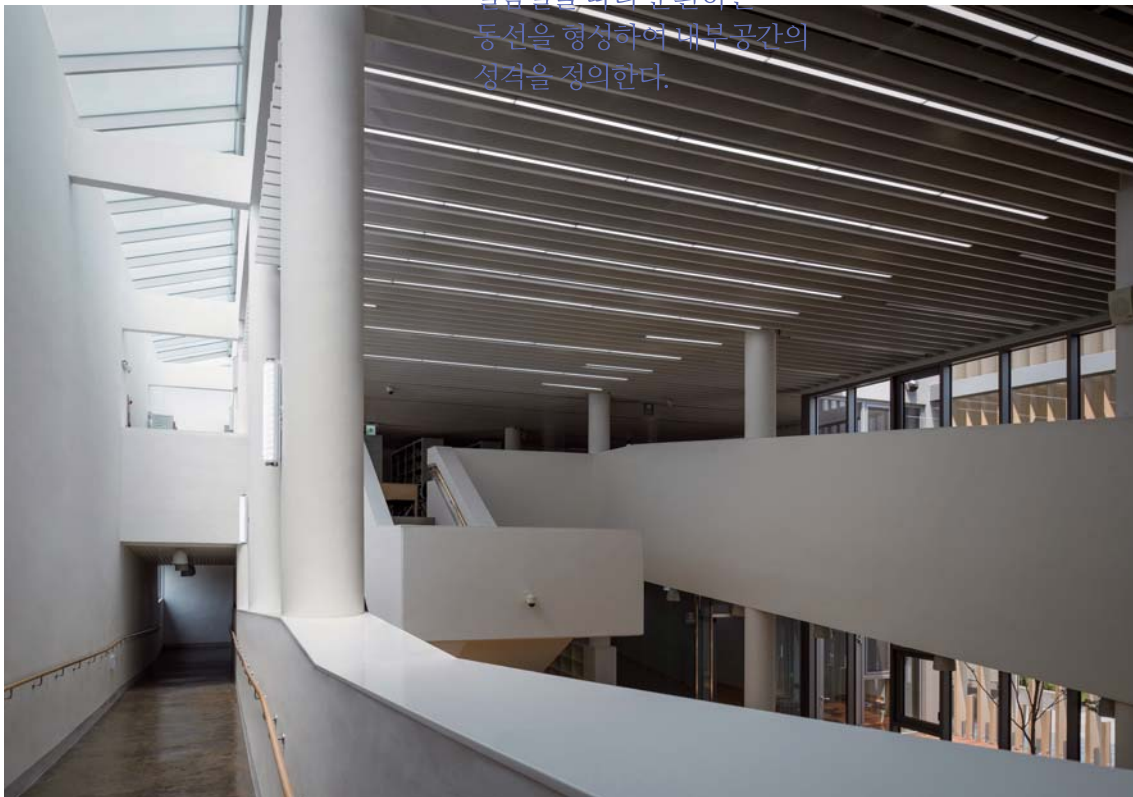
완만한 경사를 따라 길게 배치된 도서관
2층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부출입구
내외부의 관계를 정의하는 입면의 루버 패턴

열람실과
외부 공간을
이어주는 중정



대지의 가장 낮은
남쪽 끝에서 시작된 경사는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일관된 질서로서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까지 이어지고,
열람실을 따라 순환하는
동선을 형성하여 내부 공간의
성격을 정의한다.

© 전경환



열람실을 따라 순환하는 경사로

도서관: 지식의 확장을 위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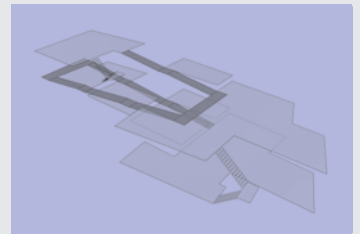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다. 도서관의 장점은 많은 책들을 자유롭게 접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라는 공간의 본질적 목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인기 사업인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종종 간과되곤 한다. 현실적인 요구라는 핑계 아래 각각의 공간은 기능에 따라 철저하게 구획되고, 중심 공간인 열람실은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조용히 공부하는 독서실과 같은 도서관이 되는 것이다.

지식의 확장이란 때로는 엉뚱한 발상이나 기발한 시도를 통해 촉발되기도 하며, 느슨한 연결이 어느 순간 확고해지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담는 공간 또한 넓게 열려 있고, 어디론가 연결되며,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시끄러운 것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야 한다. 지식을 확장하는 이성적인 행위가 공간 자체가 주는 정서적 쾌감과 심리적으로 결합되어 '책을 읽는 것은 즐겁다'라는 체험적 진리를 터득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이심전심으로 공유되고 전파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공공공간으로서 갖춰야 할 도서관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고 믿는다.

© 전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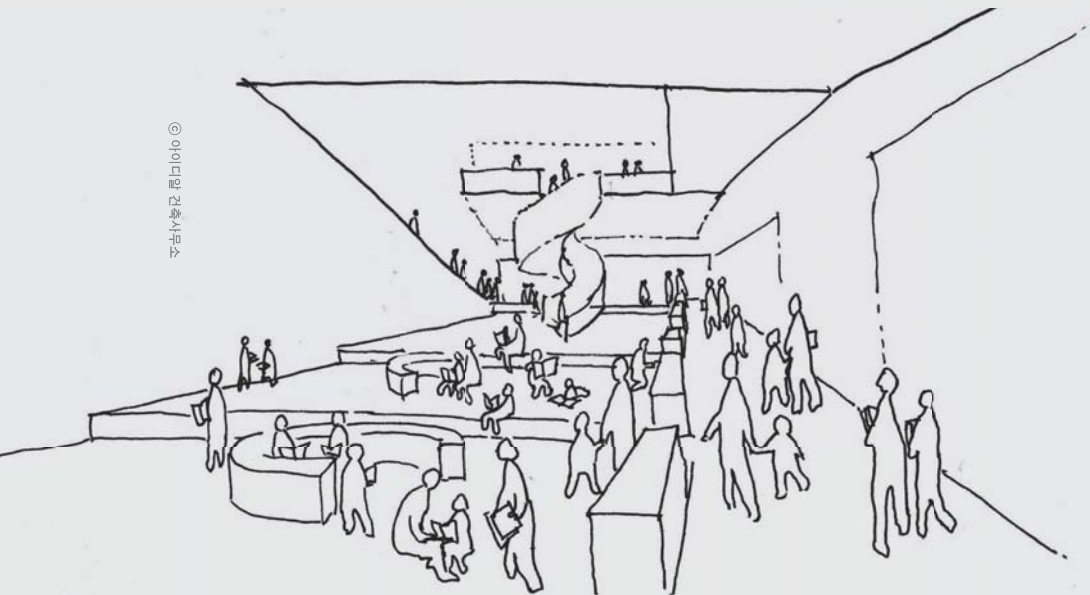


© 아이디어 건축사무소



상 자연스럽게 진입을 유도하는 주출입구
하 열람실을 순환하는 경사로

© 아이디어 건축사무소



스케치로 그려본 열린 도서관의 이미지



© 전영호



© 아이디어 건축사무소

상 알루미늄 루버 디테일
하 중정에서 바라본 열람실

경사진 지형에서 실마리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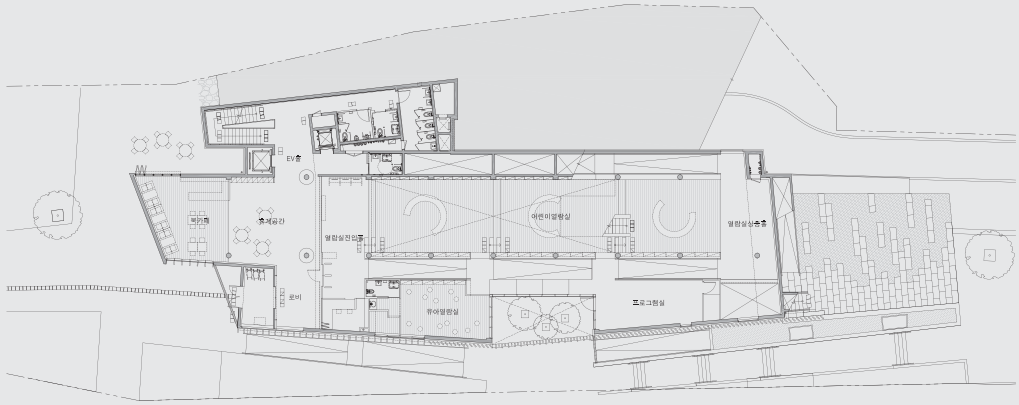
매곡도서관은 최근 들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매곡산업단지 주변 주거지를 위해 계획된 공공도서관이다. 설계공모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의외로 지형적인 조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지는 신천천이라는 건천을 앞에 두고 남북으로 기다랗고 좁게 길이 방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경사가 가진 건축적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약간의 레벨 조정을 거쳐 대지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12분의 1의 친숙한 구배를 가진 경사로를 만들 수 있었고, 이를 매개로 건물과 외부공간을 하나의 질서로 엮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가족이 산책하러 오는 숲속 공원처럼 편하고 친근한 도서관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경사에 따라 여러 레벨로 나누어진 외부공간에는 화단과 수목이 어우러진 산책로를 조성하여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공원의 일부로서 대지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놓인 도서관 건물이 대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용자를 맞이하는 전면 광장과 이벤트를 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후면 광장을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춘 주차장은 진입 방향에서 볼 때 대지의 가장 뒤편에 배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지 앞쪽 기존 도로와의 사이 공간에 산책로와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도서관의 일부로 통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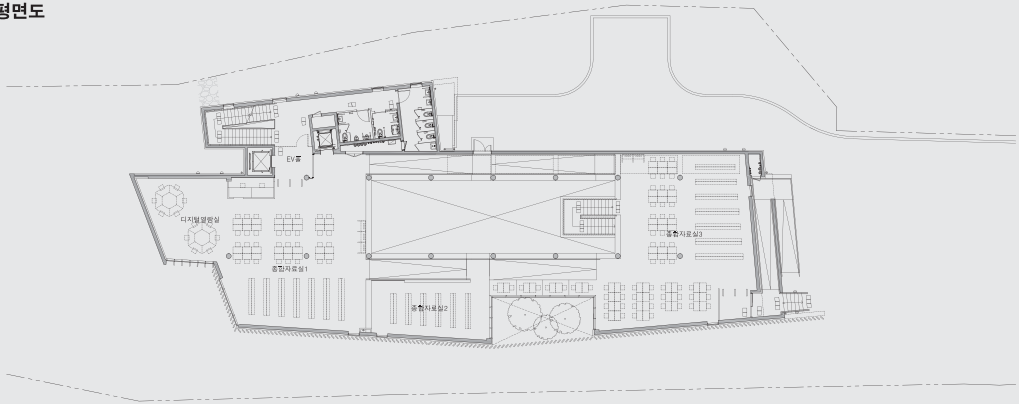
숲을 형상화한 입면

도서관의 주 입면은 대지 앞을 흐르는 신천천에 길게 면하고 있다. 숲의 나무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입면의 수직 루버는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각각 간격과 각도, 두께와 폭의 패러미터를 통해 정의되었다. 전면도로를 따라 지나가면서 볼 때 변화하는 외부 입면의 모습과 열람실 내부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옵션을 비교·실험하여 최종 입면 패러미터를 결정하였다. 수직 방향에 맞춘 송판무늬 노출 콘크리트와 나무 재질이 입혀진 알루미늄 루버라는 외장재의 조합을 통해 도서관 건물이 숲과 어우러지는 외부공간의 일부로 읽힐 수 있도록 의도하였으며, 동시에 적절히 통제된 패러미터를 거쳐 표현된 복잡성이 건물이 가진 현대적 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을 암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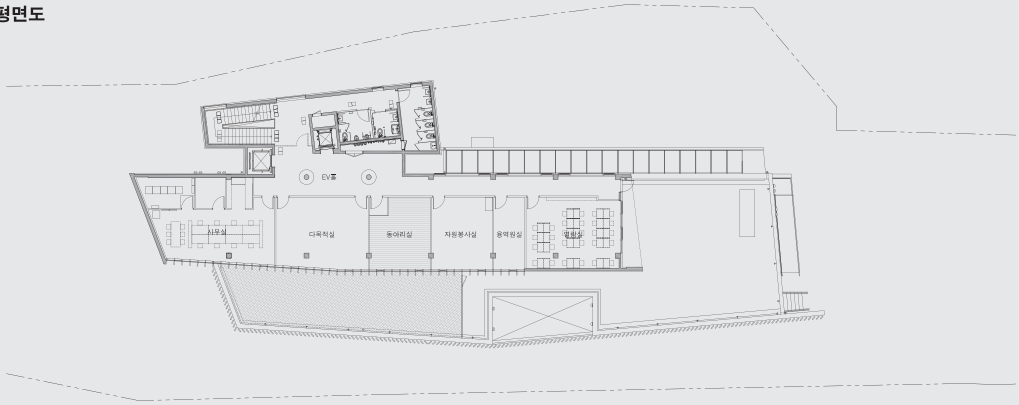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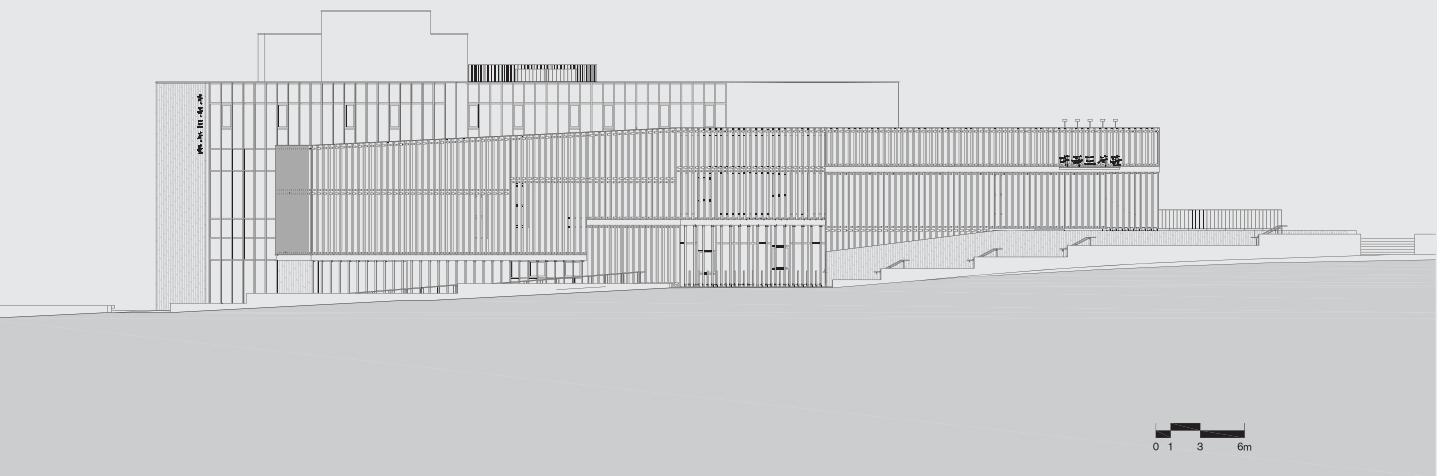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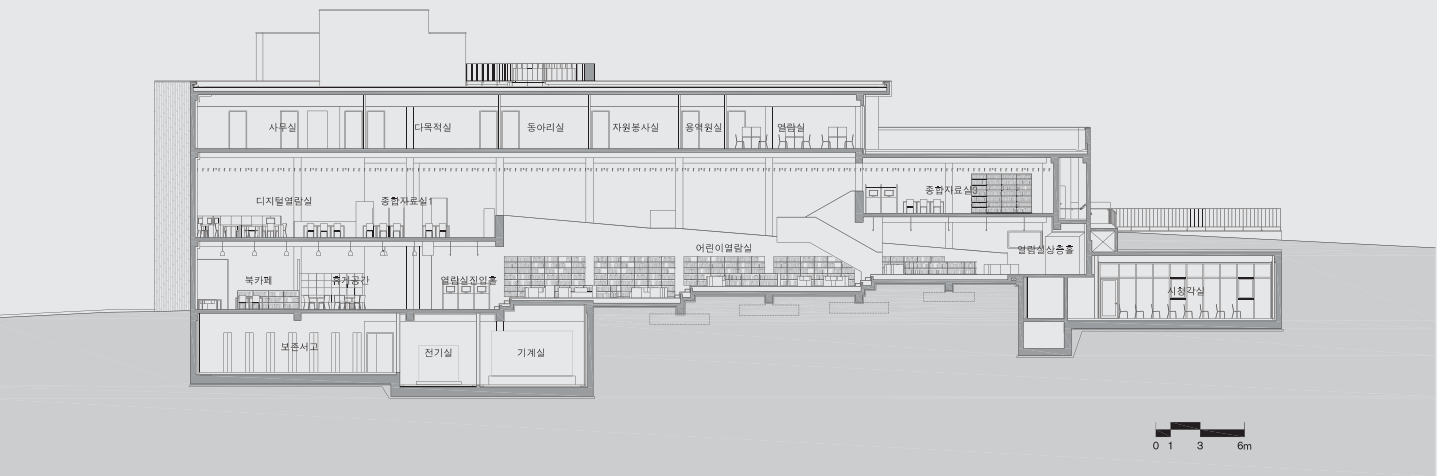


매곡도서관 층별 평면도

매곡도서관 동측면도



매곡도서관 횡단면도



가족과 함께 책의 숲을 거닐다

매곡도서관의 내부 공간은 서로 다른 레벨 위에 펼쳐진 열람실의 서가를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산책하듯 거닐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대지의 가장 낮은 남쪽 끝에서 시작된 경사는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일관된 질서로서 외부공간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까지 이어지고, 열람실을 따라 순환하는 동선을 형성하여 내부공간의 성격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고유한 기능을 가진 도서관 내의 개별 공간들이 하나의 중심 공간을 향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매곡도서관의 중심 공간인 열람실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자료실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종합자료실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기존의 도서관과는 달리 1층의 어린이자료실과 2층의 종합자료실이 명확한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통합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적 시도는 아이와 함께 어린이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이 분리된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건축가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어린이열람실에는 어른이 읽을 만한 책이 없고, 일반열람실은 아이와 함께 책을 읽기엔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던 것이다.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가족과 ‘함께’ 읽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설계한다면, 이렇게 불편한 도서관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기에 편안한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다. 매곡도서관의 공간 구성은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실과 유아열람실, 디지털자료실은 중심 공간에 마치 열린 주머니처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모든 실은 경사로를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레벨 위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공간적 특질로부터 설계자가 미리 예측하거나 정해 놓지 않은 것이 가능한, 일종의 계획된 유연성이 촉발되기를 의도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공유 가능한 창의적 인프라로서 공공공간의 역할을 매곡도서관이 갖추게 되기를 바랐다. 3개의 단으로 구성된 어린이자료실과 이를 모든 방향에서 바라보며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경사로를 이용하여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이벤트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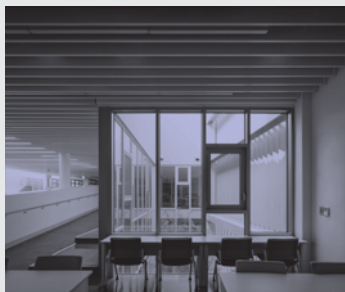
시끄러운 도서관

매곡도서관은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온 사람들을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이다. 도서관이 조용하지 않고 시끄럽다는 점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도서관이 본질적으로 어떤 공간이어야

© 전영호



상 열람실 2층에서 바라본 중정
중 천창을 통해 유입되는 부드러운 자연광
하 차분한 색채로 차별화된 계단실



상 중정을 향하고 있는 2층 열람실 좌석
하 열람실 2층에서 내려다본 어린이자료실

하는지 그 근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도서관이 꼭 쥐 죽은 듯이 조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도서관은 시험공부를 위한 무료 독서실이 아니라 ‘책을 읽고 지식을 확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은 불과 30년 전과 비교해도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쩌면 이제는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못지않게 서로 만나고 모여서 함께 지식을 확장하는 경험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이라는 공간 또한 함께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역사가 긴 나라들에서는 이미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 지 오래이다.

지식의 확장, 경험의 공유를 위한 열람실

매곡도서관은 도서관치고는 로비 공간이 매우 초라한 대신 책을 읽는 공간인 열람실이 도서관 전체의 주인공으로서 가장 밝고 개방감 있게 설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진입로비가 크고 화려한 반면 열람실은 천장고도 낮고 용도에 따라 철저하게 구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건축에 대해 기대하는 근거 없는 권위, 관리상의 편의와 소음통제의 용이함 등에서 비롯된 고정관념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유형이다. 매곡도서관은 이러한 관습을 반대로 뒤집은 셈이다.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케일의 사용은 최대한 절제하였고, 기다란 건물 배치와 레벨 차이를 이용하여 공공공간이지만 마치 집과 같은 편안한 스케일이 느껴지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동시에 모든 공간이 서로 관계를 가지며 이어지게끔 만들어, 도서관을 방문하는 모두가 열린 장소에 있음을 느끼고 동시에 공유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공공성의 원칙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기를 바랐다. 도서관의 중심 공간이 경사로를 따라 끊임없이 펼쳐지며 성장해 가는 과정을 통해 ‘지식의 확장과 경험의 공유’라는, 우리가 꿈꾸어 왔던 이상적인 도서관의 두 가지 목적이 매곡도서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